

임팩트 그라운드 사업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일자(2025.09.05.)

단체 및 지원 개요	
단체명	사단법인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땡땡
사업 기간	2023.01.01 ~ 2025.8.15
임팩트 그라운드 지원 사업	<p>홈 프라이드 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간 지원 확대와 24시간 운영 체계 수립 - 청소년 기관 종사자 교육 정보 제공, 네트워크 강화
	<p>자립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직업 체험/훈련, 교육 기회 연결 - 자립 자원 발굴 및 연계
	<p>지역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영남권 거점 설립 및 시범운영 - 지역 프로그램 운영 (땡땡식당, 땡땡포차 & 종사자 교육 등) - 지역 연계 자원 발굴, 확보에 주력
	<p>심리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리상담 전문 책임상담원 제도 도입 - 자살, 자해위기 관련 활동가 역량강화 - 청소년 성소수자 심리지원 네트워크 구축
	<p>지속가능한 조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 및 일시 기부자 확보를 위한 캠페인 - 홍보 시스템 개편(홈페이지, 마스코트, 홍보채널 등) - 10주년 기념 캠페인 및 행사 진행

1. 사업 개요

<p>홈 프라이드 홈: 긴급 주거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안적 주거공간 마련 및 주2회 야간 시범 운영 - 내부 긴급 주거지원 체계 마련 - 야간센터 숨숨 활동 평가 및 새로운 대안 찾기
<p>마음 돌봄: 원스톱 심리상담 도입 및 상담역량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정(주1회) 책임 심리상담사 배치 - 원스톱 심리상담(책임 심리상담사) 연계 및 진행 - 상담 역량 강화를 위해 개인/그룹 슈퍼비전 진행 - 활동가 소진 예방을 위한 마음돌봄 심리지원 진행
<p>학교 안팎의 변화: 교육과 네트워크 활성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 기부자 네트워크 운영 - 학교 기관 종사자 대상 교육 제공 - <학교에서 무지개길 함께 걷기> 발행 및 배포 - 성소수자 학생 지원 경험 및 고민, 현장의 변화를 시도하는 활동 지원
<p>지역의 상담 지원 접근성 강화: 평동 지역 거점 만들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영남권 청소년 기관 발굴, 방문 및 프로그램 진행
<p>지속가능한 평동 활동 만들기: 모금과 홍보 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 기부자 발굴, 기부자와의 접점 강화 - 온라인 및 오프라인 홍보물 리뉴얼 및 연간보고서 발행 - 다양한 정보 제공과 위기 상황 개입을 위한 온라인 홈페이지 개편 - 그 외 특별 모금(10주년 기념, 매칭기부 등) 사업

2. 사업 진행 보고 및 성과 요약

1) 세부 사업 보고

(1) 홈 프라이드 홈: 긴급 주거 지원 (2023년 ~ 2024년)

① 야간센터 숨숨 구축 및 운영

- 야간 시간대(22시 ~ 익일 9시)에도 가정 폭력 및 학대 등으로 탈가정하거나 위기 상황에 있는 24세 이하 성소수자 이용 가능한 야간센터 개소 및 운영 (총 35주 운영)
- 국내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청소년 성소수자 대상 야간 지원 시설이기 때문에 롤모델이 없어 서류, 공간 구획, 관리 지침 등을 새롭게 만들어 개소하였음.

- 사무국 워크숍 및 공간 브랜딩 작업: '야간센터 숨숨'
- 이용자 및 활동가 안전을 위해 야간 지원 매뉴얼, 이용자 약속문, CCTV 설치 등 작업 진행
- 이케아코리아 메이크오버 프로젝트 지원: 침대, 캐비닛, 소파 등 가구 및 소모품 배치
- 시범 운영 시작: 요일별 시범 운영 진행, 야간 지원을 포함한 스케줄 근무 전환
- 전국 청소년 유관기관 및 쉼터 499곳에 온라인/오프라인 홍보 및 협조 공문 발송

- 4월 이후 '야간센터 숨숨' 개소. 탈가정 청소년 성소수자에게 야간센터 숨숨 공간 제공과 공간을 이용하지 못하는 지역 청소년에게도 야간 시간대에 긴급주거지원 상담(카카오톡, 전화 등) 제공. (주 2회 시범 운영)

- 야간센터 숨숨 이용 위기지원 건수 22건(식사, 센터이용 등), 이용 청소년 4명, 긴급주거지원 상담 9명.

② 청소년 쉼터 및 주거지원 단체: 기관방문

- '야간센터 숨숨' 및 홈프라이드홈 사업 재정비를 위한 아동/청소년 주거, 자립지원 기관 및 주거지원 사업 운영 단체 총 6곳 방문 완료.

- 일시 쉼터: 양천일시청소년쉼터,
- 단기 및 장기 쉼터: 여성의전화 부설쉼터 오래뜰
- 자립지원관 및 특수 쉼터: 인천자립지원관 별바라기, 계양구아동학대피해시설 도토리, 다다다 협동조합, 서울시립 청소년이동쉼터 더작은별

③ 탈가정 청소년 성소수자 사례 청취

- 2023년 '야간센터 숨숨'을 이용자를 대상으로 면접 인터뷰 진행. 면접 인터뷰는 탈가정 전 / 탈가정 진행중 / 탈가정 이후(원가정 복귀, 주거 안정 등)의 상황과 주거지원 시설 이용 평가, 야간센터 숨숨 시설과 종사자 응대, 시스템(규칙, 신청서 작성, 입/퇴소 프로세스 등) 등에 대해 주관적인 평가를 청취하였으며, 이용자 4명 중 2명이 인터뷰에 참여하였음.

- 야간센터 숨숨 이용자가 공통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 정체성 등 상관없이 눈치보지 않는 편안한 공간, 성소수자 이해도가 높은 종사자 등을 긍정적 평가로, 적은 입소 기간(2일)과 지원 여부와 입소까지의 과정과 절차 등을 부정적 평가하였음.

(2) 마음 돌봄: 원스톱 심리상담 도입 및 상담역량 강화 (2023년 ~ 2025년)

① 고정(주1회) 책임심리상담사 배치 및 지속 운영

- 책임 심리상담사 위촉 및 원스톱 심리상담 구축: 정신건강, 심리문제의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 성소수자의 심리적, 정신적 해소를 위해 책임심리상담사를 위촉하여 원스톱으로 심리상담을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운영. (책임 심리상담사: 우승연(라이더), 전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운영위원 및 미술심리상담사)

- 책임심리상담사 배치 이후 **2023년(73건), 2024년(134건), 2025년(79건¹) 심리상담 제공**. 정신건강/심리문제로 인해 심리상담을 호소하는 내담자가 점점 증가하고 있음.

- 책임심리상담을 진행한 내담자(7명)에게 만족도 평가를 진행했으며, 심리상담에 대한 어려움 해결, 만족도, 추천여부, 정서적 안정 해결 여부 등을 확인하였음.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항목에**

4.9, 심리상담을 통해 안전을 느꼈다는 항목에 5점, 만족도 5점, 정서적 안정 해결 여부 4.7점 등(5점 만

¹ 2025년 1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 (사업종료일)

점)으로 대부분의 내담자가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음.

② 활동가 상담역량 강화 및 소진 예방

- 사례관리 및 상담을 진행하는 활동가들의 상담 역량 강화를 위해 개인 슈퍼비전(총 42회) 및 심리검사(TCI), 단체 그룹 상담 역량강화 교육(RGPI) 완료.
- 상담 및 지원 과정에서 어려움 및 소진 예방을 위해 상담활동가에게 마음돌봄 및 심리지원을 위해 연 30만원 제공. (운동, 정신건강, 재충전 등을 위해 사용)

(3) 학교 안팎의 변화: 교육과 네트워크 활성화 (2023년 ~ 2025년)

① 교사 네트워크 활성화

- 교사 기부자들 대상 뉴스레터 <여기에서부터, 무지개학교> 콘텐츠 제작 및 분기별 발송 중. (평균 오픈율 50% 이상), 뉴스레터 구독자는 144명이고, 100명 이상의 교사 기부자가 멩동 정기기부로 참여하고 있음.
- 기부자의 날 '교사특집' 오프라인 모임 운영 완료. (총 4회)

② 종사자 대상 교육

- 청소년을 만나는 기관 및 단체, 교육 및 상담 등 종사자를 대상으로 청소년 성소수자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부터 사례 토론, 심화 교육(트랜스젠더, HIV, 양육자 응대) '청소년 성소수자, 어떻게 만날까?' 연 1회 진행 완료 (총 68명 수강)
- 교육 참여자들이 청소년 성소수자 상담, 지원에 도움이 되었는지 여부에 관해 참여자들이 (4.7점/5점 만점)으로 평가하였음. 청소년 성소수자 상담, 지원에 도움이 되었는지 여부에 관해 (4.67점/5점 만점)으로 평가하였음.

③ <학교에서 무지개길 찾기> Ver.2 제작

- 학교 현장에서 청소년 성소수자를 만나는 교사를 돕기 위해 <학교에서 무지개길 찾기> 가이드북 개정판을 '인권교육을 위한 교사모임 샘'과 함께 제작, 배포함. (2025년 8월 발행)

(4) 지역의 상담 지원 접근성 강화: 멩동 지역 거점 만들기 (2024년)

① 부산/울산/경남 청소년 기관 발굴, 방문 및 프로그램 진행

- 부산·영남권 거점 설립을 위해, 부산 지역 청소년/성소수자 기관 및 단체 방문 완료. (방문기관 총 7곳)

- 성소수자/커뮤니티/인권단체 : 홍예당, 부산인권플랫폼 파랑,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어린케어센터
- 청소년기관 : 동래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영도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수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상구청소년수련관, 부산시청소년활동지원센터

- 지역 청소년 성소수자 특집 프로그램 '땡동식당' 대구(2024년 9월 29일, 5명 참여) 및 부산(2024년 10월 12일, 13명 참여) 진행 완료.

(5) 더 멀리, 더 많은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땡동과 함께: 모금과 홍보 사업 (2023년 ~ 2025년)

① 정기 기부자 발굴, 기부자와의 점점 강화

- 연간보고서(국문/영문) 홍보물 제작 및 배포 완료. (연 1회)
- 기업 및 재단 등 파트너십 강화와 모금 채널 확대를 위해 '땡동 기부 · 모금 보고서' 제작 및 배포 완료.
- 정기기부자 확대를 위한 온라인/오프라인 캠페인 진행 완료. (24년 하절기, 브라이언 임팩트 매칭 기부. 111건/2,621,000원 기부 완료)
- 일시기부 캠페인 진행
- 가. ['탈가정 청소년 성소수자에게 생필품을 선물해주세요.'](#) 네이버 해피빈 캠페인 (9,098,000원/399건 기부 완료)
- 나. [야간지원을 위한 야간센터 숙소](#) 증액 캠페인 (정기기부 증액 90명, 신규 정기기부 27명 가입 완료)
- 나. 기념일 기부 '[오버 더 레인보우](#)' (4,365,730원 기부 완료)
- 다. 청소년 성소수자 자살 방지 및 책임심리상담사 확대를 위한 서명 및 기부 캠페인 '[청소년 성소수자 마음 안전망을 더 촘촘하게](#)' (3,357,999원 기부 완료)
- 땡동 공식 홈페이지 및 카카오톡 개편 작업 완료.
- 임팩트 그라운드 사업 시작 이후 정기기부자 지속 증가 (2023년 1월 1일: 1,144명 → 2025년 8월 1일 **1,402명 22.6% 증가**)

② 더 많은 곳에 멀리, 땡동을 알리기

- 서울 퀴어문화축제 부스 및 쿨룸카페 운영을 통해 청소년 성소수자에게 기관 소개 및 홍보 캠페인 진행 완료. (매년 200~300명 땡동 카카오톡 채널 추가)

③ 10주년 특별 사업

- 10주년 특별 아카이빙 및 모금 독려 페이지 개설 및 홍보 ddingdong.kr/10year

- 10주년 기념을 위해 생일축하 모금 진행 (약 28,000,000원 모금 완료)
- 10주년 기념 행사 '[땡땡 10살 생일파티](#)' 오프라인 행사 진행 (162명 참석) 기부자에게는 10년을 지속한 땡땡에게 감사와 응원을, 청소년 성소수자들에게는 안전하게 미래와 자긍심을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배치하여 진행 완료.

2) 기관 및 담당자 평가

(1) 홈 프라이드 홈: 긴급 주거 지원

- 땡땡이 개소한 이후 탈가정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주거지원 고민이 꾸준히 있었으나, 직접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었음.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9년부터 '홈프라이드홈' 프로젝트를 시작하였고, 대안적 주거 공간을 만드는 것은 물론 청소년 쉼터 및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교육 제공, 연구조사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음.
- 임팩트 그라운드 사업을 통해 국내 최초, 유일로 '야간센터 쉼숨'을 개소하여 야간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였음. 야간시간대 응대 매뉴얼, 약속문, 입소자 신청서, 인수인계 안건지 등 이용자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행정 서류와 비상 알람벨, 긴급 전화 설치 등 야간시간대에 안전하게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음. 다만, 위기지원 건수 22건(식사, 센터이용 등), 이용 청소년 4명, 긴급주거지원 상담 9명 등 예상보다 적은 인원이 이용하였고, 주 2일 운영기간의 한계 등을 시범 운영을 하며 확인할 수 있었음. 특히 야간 근무 활동가가 주간 업무를 동시에 하게 되다 보니 주간 상담 일정이 미뤄지거나 업무 과부하가 있는 등 활동가 소진에도 큰 영향이 있었음을 확인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거지원을 통해 만난 청소년 성소수자들을 통해 '야간센터 쉼숨'과 같은 대안적 주거 공간에 대한 필요성과 땡땡이 '야간 지원'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음. 더 안정적인 운영과 장기간 지원할 수 있도록 홈프라이드홈 프로젝트를 발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계획이 필요함.
- '야간센터 쉼숨' 운영 및 야간 지원 이전에는 일시쉼터 연계, 고시원 입소 지원 등을 중심으로 야간 지원을 고민하였음. 야간센터 쉼숨을 재정비하면서 우리의 목표를 다시 설정하기 위해 단기/장기 및 자립을 중심으로 기관 방문을 진행하였음. 이 과정에서 땡땡이 고민하고 있는 주거지원이 일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립지원관, 단기/장기, 그룹홈 등에 대한 모델을 고민할 수 있었고, 안정적인 공간을 만들기 위해 장기적 비전 수립에 필요한 현장 정보 등을 청취할 수 있었음. 주거지원 환경의 변화를 확인하며, 일시주거공간 마련 이외 자립과 연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을 확인함. 동시에 긴급 주거지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과의 협력이 더 강화되어야 함.
- 임팩트 그라운드 지원은 종료되었으나, 일시적 야간지원을 넘어 종합적인 자립지원으로 나아가기 위해 2025년 청소년 주거권 네트워크 온과 워크숍을 진행하였고, 땡땡이 할 수 있는 자립지원의 틀을 만들어가고 있음. 여전히 트랜스젠더 청소년 쉼터 입소 문제와 야간 시간대의 긴급 위기지원 문제 등 해소되지

못한 채 남아 있지만,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 운영기준> 개정, 자립지원 청소년 기관 등과의 긴밀한 협력 등을 계속 이어가고자 함.

(2) 마음 돌봄: 원스톱 심리상담 도입 및 상담역량 강화

-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정신건강/심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스톱 심리상담(책임심리상담사 제도)를 제공하고 나서 내담자들의 정신적 어려움 등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음. 단순히 심리상담의 건수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내담자-핑동(담당자)-심리상담사와의 관계유지와 심리상담의 만족도(평균 4.8점 이상/5점 만점)도 굉장히 높은 편. 심리상담을 진행하며 트랜스젠더 청소년들이 비트랜스젠더 청소년보다, 정신건강 및 심리적 어려움을 더 겪고 있고, 부모와의 관계, 경제적 어려움 등이 반복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이에 따라 트랜스젠더 특별지원 (호르몬 치료 지원, 젠더표현존 운영 등)을 더 강화하여 지원하고자 노력하였음.
- 임팩트 그라운드 지원으로 원스톱 심리상담이 가능한 구조를 구축할 수 있었고, 이용자/활동가 만족도 모두 크다는 사실도 확인하였음. 앞으로 심리상담가 인건비 비용을 자부담으로 마련해 원스톱 심리상담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3) 학교 안팎의 변화: 교육과 네트워크 활성화

- 10대 청소년 성소수자들에게도 '학교'는 배움의 공간이자, 관계를 형성하고, 성장의 발판이 되는 중요한 공간임. 동시에 존중을 받지 못하는 경험을 하거나 괴롭힘과 폭력에 노출되기도 해 '위험'한 늘 존재하는 곳이기도 함. 이 문제를 해소하고자 학교에서 지지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교사'의 역할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네트워크를 확장해, 학교의 변화를 촉진하고자 하였음.
- 임팩트 그라운드 지원으로 핑동 활동을 지지하는 교사들을 가시적으로 확인하고자 <여기에서부터, 무지개학교> 뉴스레터 구독자를 144명 확보하였고, 분기별 소식을 전하거나, 기부자의 날 참석을 독려하며, 보다 밀착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음. 또한 청소년 기관 종사자 교육을 매년 1회 진행하며, 성소수자 인권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2025년에는 학교 위클래스 교사만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하였음. 마지막으로, <학교에서 무지개길 찾기> 가이드북 개정판을 제작해 배포함으로써, 성소수자 학생 지지 교사를 확대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음.
- 임팩트 그라운드 지원은 종료되었으나, 성소수자 학생을 지지하는 교사, 핑동과 긴밀히 협력 가능한 청소년 기관 종사자, 자녀의 문제를 함께 해결할 의지가 있는 부모 등 핑동을 응원하고 협력하는 네트워크는 다양한 주체로 확대되어야 하며, 앞으로도 이 같은 활동을 계속 이어가고자 함.

(4) 지역의 상담 지원 접근성 강화: 핑동 지역 거점 만들기

- 핑동은 국내 유일의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기관으로 현재 서울에 주사무소(센터)가 1곳이 운영되고 있

고, 비서울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 성소수자 상담과 지원, 자원 연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땡동이 지역에도 있다면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 답을 찾기 위해 '지역 거점'을 만들기 위한 활동을 기획하고 이어갈 수 있었고, 구체적으로 부산/영남권 지역에 직접 방문해 청소년 기관 방문을 하고 청소년 성소수자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 자원과 필요성을 탐색할 수 있었음.

- 이 과정에서 수도권 외 지역에서의 인프라와 한계 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새로운 지역의 센터 설립이 단기적으로는 어려울 수 있어도 충분히 가능성 있는 활동이라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었음.
- 임팩트 그라운드 지원은 종료되었으나, 비수도권 지역에 땡동 거점을 설립하고자 하는 목표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으며, 2025년 지부를 운영하는 타 단체 자문을 받거나, 자료 조사 활동을 계속 이어가고 있음.

(5) 더 멀리, 더 많은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땡동과 함께: 모금과 홍보 사업

- 코로나19이후 침체된 경제 등을 고려했을 때, 땡동 역시도 다른 비영리기관 및 법인과 마찬가지로 정기기부자들의 탈퇴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었음. 그럼에도 꾸준히 땡동의 필요성을 알릴 수 있는 캠페인, 기부 채널 개발, 모금팀 역량개발 등을 통해 온라인/오프라인 등을 통해 기부자와 스킨십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발굴하고 시도하였음.
- 특히 2025년은 땡동이 1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기에 온라인(아카이빙 및 모금 페이지)과 오프라인(10살 생일파티)를 통해 긴밀하게 땡동과 함께해준 다양한 분들을 만나고 땡동의 성과와 여전히 필요한 지원, 비전 등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
- 땡동은 앞으로도 단체 활동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꾸준히 모금캠페인을 개발하고 기부를 통해 지지자를 확대해 나갈 것임.

3) 임팩트 측정 계획 대비 평가

- 땡동은 임팩트그라운드 지원 사업을 통해 청소년 성소수자가 안전하게 생활하고, 주체적으로 자립하며, 지역과 사회 속에서 지지망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미래비전을 수립하였음. 최초 작성한 미래비전계획에서 지원금이 확정된 이후 다음과 같이 목표를 조정함.

최초	최종
홈 프라이드 홈 구축 - 야간 지원 확대와 24시간 운영 체계 수립 - 청소년 기관 종사자 교육 정보 제공, 네트워크 강화	홈 프라이드 홈: 긴급 주거 지원 - 대안적 주거공간 마련 및 주2회 야간 시범 운영, 내부 긴급 주거지원 체계 마련 (2023) - 야간센터 숨숨 활동 평가 및 새로운 대안찾기 (2024)
자립 지원 - 다양한 직업 체험/훈련, 교육 기회 연결	-

- 자립지원 발굴 및 연계	
지역 청소년 성소수자와의 접점 확대 - 부산 영남권 거점 설립 및 시범운영 - 지역 프로그램 운영(땡동식당, 땡동포차, 종사자교육 등)	지역의 상담 지원 접근성 강화: 땡동 지역 거점 만들기 - 부산/울산/경남 청소년 기관 발굴, 지역 방문 - 청소년 성소수자 참여 프로그램 비서울 지역에서 운영 (2024)
전문 심리상담 지원체계 마련 - 심리상담 전문 책임상담원 제도 도입 - 자살, 자해위기 관련 활동가 역량강화 - 청소년 성소수자 심리지원 네트워크 구축	마음 돌봄: 원스톱 심리상담 도입 및 상담역량 강화 - 책임심리상담가 채용, 원스톱 심리상담 연계 및 진행 - 활동가 상담 역량 강화 및 소진 예방
	학교 안팎의 변화: 교육과 네트워크 활성화 - 청소년 지원 기관 현장 종사자 대상 교육(기초, 심화) - 교사 기부자 네트워크 활성화 - <학교에서 무지개 길찾기> ver2 발행 및 배포 (2025) - 학생 성소수자 지원 경험 및 고민, 현장의 변화를 시도하는 활동 지원
	지속가능한 땡동 활동 만들기: 모금과 홍보 사업 - 온라인/오프라인 홍보물 리뉴얼 및 연간보고서 발행 (2023~2025) - 다양한 정보 제공과 위기 상황 개입을 위한 온라인 홈페이지 개편 (2024) - 정기 기부자 발굴, 기부자와의 접점 강화 - 특별 모금사업 - 10주년 기념행사 및 성과 아카이빙 (2025)

- 아웃풋(output)은 사업 수행의 성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표로서, ▲야간센터 이용 건수 및 긴급 주거지원 건수 ▲원스톱 심리상담 횟수 ▲프로그램 참여 청소년 수 ▲교사 및 기관 종사자 교육 횟수 및 자료 배포 수량 등과 같이 활동의 양적 성과를 통해 확인하고자 하였음.

- 아웃컴(outcomes)은 지원사업을 통해 궁극적으로 만들고자 한 변화로서 청소년 성소수자 개인 차원에서는 ▲주거 안정성 확보 ▲정서적 안정 및 자살·자해 위험 감소, 환경 차원에서는 ▲지역 거점 설립으로 인한 지원 접근성 확대 ▲학교 및 기관 내 성소수자 지지 환경 조성 ▲교사 네트워크 확대, 나아가 사회적 차원에서는 ▲청소년 성소수자 존재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정책 반영 및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 변화를 성과로 정의하였음.

- 미래비전계획 대비 평가

구분	성과 정의	계획 대비 평가
<p>1. 홈 프라이드 홈</p>	<p>한국 최초의 청소년 성소수자 긴급 주거 지원 공간 '홈 프라이드 홈' 마련, 지원성과를 쉼터들과 공유하고, 지원 모델을 널리 알리고자 함.</p>	<p>야간센터 숨숨을 2023년 개소하고 시범 운영하여 총 22건(이용자 4명)을 지원하기도 하였으나, 주2일 운영의 한계, 활동가의 소진 등을 이유로 매년 지속하지는 못했음. 다만, 이후에도 외부 청소년 기관의 자문을 얻고, 숨숨 이용자 인터뷰를 하는 등 긴급 주거지원을 어떻게 이어 나가야 하는지 지원방향을 찾고자 하였음. 현재 주거 지원 공간 운영을 넘어, 자립 지원까지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고민을 이어가고 있음.</p>
	<p>청소년 쉼터 종사자들이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을 할 수 있는 정보를 배우고 역량을 높여 나갈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마련함.</p>	<p>2023년부터 매년 1회 청소년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청소년 성소수자, 어떻게 만날까' 교육(기초, 심화)을 진행하였음. 교육을 통해 인권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 각 지원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확대해가는 계기를 만들 수 있었음. 특히 2025년의 경우 학교 위클래스 상담교사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별도로 개발해 추가 진행하기도 하였으며, 앞으로도 땃동의 상담사례와 지원경험을 바탕으로 청소년 쉼터, 자립지원관, 상담복지센터 종사자들이 청소년 성소수자를 편견없이 만날 수 있도록 교육을 이어가고자 함.</p>
<p>2. 상담 및 지원</p>	<p>트랜스젠더 청소년들이 역량강화와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직업 체험 및 교육의 기회를 개발하여 연결함.</p>	<p>트랜스젠더 청소년의 상담 및 지원 비율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상담만이 아니라, 진로지원 등 지원의 영역이 확장될 필요가 생기고 있지만, 임팩트 그라운드 사업을 통해서도 실제 진행한 바는 없음.</p>
	<p>부산, 영남권 지역에 시범적으로 거점센터를 설립하며, 지역의 상담 지원의 접근성을 강화하고자 함.</p>	<p>비서울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상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024년 부산에 방문해 청소년 기관, 도움을 줄 수 있는 단체를 방문하였고, 청소년</p>

		성소수자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하였음. 한정된 재원으로 지역 거점센터 설립으로 이어지지 못했지만, 가능성을 실험해 본 소중한 기회가 되었고, 평등의 중장기적 과제로 선정하는 등 앞으로 실현 가능한 방법을 찾아갈 예정임.
	24시간 핫라인 도입, 내부 전문 심리상담사 또는 의료인 배치하여 전문적인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함	주1회 방문하는 책임심리상담사를 두고, 2년 동안 총 207건의 원스톱 심리상담을 지원함. 이 외에도 상담지원 역량을 높이기 위해 활동가 교육을 진행하였고, 활동가 소진을 예방하기 위한 지원, 개인과 그룹 슈퍼비전을 진행하는 등 청소년 성소수자의 정신건강 및 심리문제를 해결하는 위한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음. 한정적인 재원으로 24시간 핫라인 도입이나 원스톱 의료지원까지 확대되지는 못했음.

- 미래비전에 따른 성과 (Outcomes, Outputs)

	아웃풋(단기 성과)	아웃컴(중장기 성과)	측정 방법
홈 프라이드 홈 (야간센터 쉼쉼 및 주거지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간센터 쉼쉼 이용 건수: 22 건 - 야간센터 쉼쉼 이용자: 4 명 - 긴급주거지원 상담: 9 명 - 야간센터 이용자 평가: 2 명 인터뷰 진행 (성소수자 친화적,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 등 평가) - 주거지원 매뉴얼 및 안전지침 마련 - 주거지원을 위한 기관방문: 6 곳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간센터 쉼쉼 시범 운영을 통해 긴급 주거지원을 시도하고, 청소년 성소수자의 주거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었음. - 일시적인 주거 지원을 넘어 자립 지원과 같이 중장기적인 주거지원 목표를 수립함. - 주거 지원 연계 협력을 통해 청소년 쉼터 및 유관기관의 성소수자 수용성 증대시킴 	이용자 상담 기록, 이용자 만족도 인터뷰, 연계기관 현황
마음 돌봄: (원스톱 심리상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임심리상담사 1 명 (주 1 회 근무), 원스톱 심리상담 건수: 23 년 73 회, 24 년 134 건 - 내부 심리상담 지원회의: 23 년 23 회, 24 년 21 회 - 책임심리상담회의: 총 8 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성소수자의 정신건강 및 심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책임심리상담사를 안정적으로 운영, 원스톱 심리상담 환경을 구축함. - 이로써, 자살·자해 위험 감소시키고, 정서적 안정 및 회복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음. 	상담일지, 만족도 조사, 슈퍼비전 및 상담사례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리상담 만족도(5점 척도): 어려움 해결 4.9 점, 안정감 5 점, 정서적 안정 해결 4.7 점 - 개인 슈퍼비전: 23 년 18 회, 24 년 24 회 - 그룹 슈퍼비전: 23 년 1 회, 24 년 1 회 		
학교 안팎의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 및 종사자 교육 횟수: 매년 기초 1 회, 심화 1 회 진행 - 교육 참여자: 23 년 33 명, 24 년 37 명 - 교육 평가/만족도 5 점 만점: 23 년 평균 4.7 점, 24 년 평균 4.7 점 - 교사 특별 뉴스레터: 175 명 구독자, 100 명의 교사 기부자 확보 - 가이드북 배포: 25 년 현재 배포 중(약 200 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1 회 이상의 종사자 교육과 교사 뉴스레터 구독자 확대, 기부자의 날 개최 등을 통해 학교 안팎에서 지지망을 확대하고, 청소년 성소수자 친화적 환경을 구축함. 	교육 참여자 평가, 뉴스레터 통계, 배포 현황
지역 접근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기관 방문 횟수: 9 곳 - 비서울 지역 (대구, 부산) 청소년 성소수자 참여 프로그램: 2 회 개최, 18 명 참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 영남권 지역에서 멩동 거점센터가 설립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함. 이는 비수도권 청소년의 상담 접근성을 개선시킬 것임. 	기관 방문 보고, 프로그램 참여자 설문
사회적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멩동 성과를 담은 연간보고서 발행, 배포 - 캠페인 진행: 매년 1 회 진행, 연 평균 500 이상 카카오톡 채널 친구 확보 (- 정기 및 일시 기부자 증가율: 258 명 증가 (임팩트 그라운드 사업 전/후 비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보고서 발행, 배포 등을 통해 멩동의 활동 성과와 필요성을 가시화하였음. - 청소년 성소수자 정신건강 증진 캠페인, 10 주년 캠페인 등을 통해 청소년 성소수자 존재를 알리고, 청소년 복지 영역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꾸준히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정책 반영 및 제도 변화 촉진하는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사회 변화로 이어질 것임. 	언론 모니터링, 기부자 DB, 정책 반영 사례

- 성과 측정은 ▲정량적 지표(상담참여 건수, 만족도, 기부자 수 등)와 ▲정성적 지표(이용자 인터뷰, 사례 기반 평가, 정책 반영 여부)를 병행하여 진행하였음. 양적 성과에 머물지 않고, 청소년 성소수자의 안정·자립·연결성이라는 미션을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지 종합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음.

- 땡동은 앞으로도 연간보고서와 상담지원보고서를 매년 발행하고, 사회적으로 공유할 예정이며, 땡동의 미래비전계획을 달성하기 위한 성과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자 함.

4) 홍보 활동 및 언론보도

1) 홍보 활동

- 연간보고서(국문) 온라인 및 오프라인 배포
- 연간보고서(영문) 온라인 배포: 해외 [글로벌기빙 플랫폼](#)을 통해 분기마다 뉴스레터 발행(영문) 및 연간 보고서(영문 번역본) 발행.

2) 언론보도 (주요보도만 기재)

- [언론] [더나은미래] [쉽터서 밀려나는 청소년 성소수자... 사단법인 땡동, 국내 첫 전용쉼터 마련](#)
- [언론] [한겨레] [성소수자 청소년이 '땡동' 할 수 있는 곳...“혼자가 아니야”](#)
- [언론] [대구MBC] [우리는 보통 사람입니다 | 빅뱅커](#)
- [언론] 한겨레 | [청소년 성소수자, 가장 안전해야 할 집에서도 밀려난다](#)
- [언론] 여성신문 | [성소수자 청년 10명 중 4명은 자살 고민...예방 대책 마련하라](#)
- [언론] 단비뉴스 | [차별과 혐오 없는 학교를 위한 무지개](#)
- [언론] 경향신문 | [NGO발언대 정민석 대표 2023년 6월부터 매월 1회 칼럼](#)
- [언론] 경향신문 | [성소수자 청소년 지켜온 '땡동'...“땡동' 필요 없는 세상 됐으면”](#)

3. 기타

1) 땡동 임팩트 보고서 발행

-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땡동 <2023 임팩트 리포트> 발행 및 온라인 배포
- 한국사회가치평가 담당자와 함께 임팩트 리포트 리뷰 자리 마련
- <2023 임팩트 리포트> 결과를 활용해 정기기부 확대 캠페인 진행

2) <포용적인 학교 환경을 위한 법제도 개선연구 - 성소수자 학생을 중심으로> 연구

- 2024. 3. 20. 주한캐나다대사관과 함께 <포용적인 학교 환경을 위한 법제도 개선연구 - 성소수자 학생을 중심으로> 연구 발표회 개최 (80여명 참석)
- 2024. 3. - 4. 총선을 앞두고 <UP! 우리 학교에 무지개를 띄우자!> 정책 설문조사 진행 및 결과 발표 (1,314명 참여)
- 2024. 4. - 9. 포용적 학교 입법 캠페인 진행, 22대 국회의원 300명에게 '입법 제안서' 전달
- 2024. 9. 성소수자 포용적인 학교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학생/청소년 인권단체 간담회 진행, 입법안 검토 및 입법전략 논의

3) 브랜드 멘토링 및 캐릭터 제작 작업 진행(더위터멜론)

- 브랜드 멘토링 워크숍 1회 진행
- 청소년 성소수자 대상 프로그램, 홍보물, 굿즈 제작을 위한 캐릭터 제작 및 홍보 완료.